

[매경시평] 中 경제위기론과 `리커노믹스`

기사입력 2013.07.21 19:25:38 | 최종수정 2013.07.22 12:42:13

중국 경제는 위기인가? 지난해 7.8%로 13년 만에 최저였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2분기에는 7.5%로 더 낮아졌다. 지난 6월에는 수출이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제조업 투자도 글로벌 경기와 국내 수요 둔화로 인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3%대로 급속히 추락하는 `경착륙`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중국이 과거 동아시아처럼 금융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물론 더 나아가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지 않을까 비관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시장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들인 높은 저축률, 개방을 통한 수출 확대와 기술 진보, 건전한 정부 재정 등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이다. 설령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나 정부의 정책 대응 실패로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부채는 중국 경제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해결에 노력하고 있어 큰 위기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 주택 대출 억제와 함께 양도세를 강화했다. 정부 규제 밖인 그림자 금융은 문제가 심각하지만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고 아직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기를 가져 올 정도는 아니다. 11조위안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잠재적 부채도 중앙정부 재정 여력으로 수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착륙을 피한다 해도 중국 경제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국의 고도 성장은 생산성 증가보다 노동과 자본 축적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양적인 성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과잉 투자로 인한 수익률 감소로 투자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15~59세인 가용노동인구는 작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의 `수렴법칙`에 따르면 선진국이 선진국과 소득 격차를 줄여 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진다. 과감한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간 중

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6%, 2030년까지는 5%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중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면서 질적 성장으로 구조 변환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쉬운 과정은 아니다. 투자와 수출 산업 주도에서 소비와 내수 산업 중심인 경제모델로 궤도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과 금융개혁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도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현 중국 경제 모델 궤도를 수정하는 책임을 맡은 조타수인 리커창 총리의 '리커노믹스'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 자제, 부채 감축, 구조 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다. 금융·재정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만 앞으로 개혁을 지켜 볼 일이다.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면 중장기 구조 개혁보다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실업률이 올라가면 사회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가 방관하기 어렵다. 6%대 성장률을 정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단기 경기 부양이 반복되면서 구조 개혁이 지연되고 오히려 정책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중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위안화 절하를 통해 수출 증대를 꾀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는 제1위 교역 상대국인 중국 경제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낙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국의 저속 성장을 주어진 상수로 받아들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종화 고려대경제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